

車산업 발목 잡은 해외시장… 하반기도 여전히 ‘빨간불’

2019년 하반기 산업 전망

③ 車업계 신차로 내수 반등

을 상반기 현대·기아차 등 국내 완성차업체들은 지난해보다 못한 성적표를 받았다.

다양한 신차 출시로 선방한 내수와 달리 해외 시장은 중국과 터키, 인도 등 신흥시장 부진으로 위축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이 올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완성차 업계에 ‘먹구름’이 끼고 있다. 다만, 올 하반기 완성차 업체들이 소형부터 고급차까지 다양한 신차 출시로 반등을 준비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부분이다.

◆상반기 해외 판매 부진 발목

3월 완성차 업계에 따르면 올 1~6월 완성차 5개사의 총 판매량은 내수 75만 5037대, 해외 311만 2878대를 합한 총 386만 7915대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9% 감소한 수치다.

현대차와 쌍용차가 내수시장에서 호조세를 이어간 데 반해 기아차와 한국지엠, 르노삼성은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해외 판매 부진은 모든 완성차 업체의 공통 부분이다. 같은 기간 내수는 0.3% 감소하는 데 그쳤으나 해외는 6.0%나 줄었다.

현대·기아차는 중국과 신흥시장의 판매 부진을 기록했으며 르노삼성은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 장기화에 따른 생산 절벽과 북미 수출용 낫산 로그 물량 감소 여파로 해외 판매가 42.0%나 감소했다. 낫산자동차가 부산공장 가동률을 이끌고 있는 로그의 수출 물량을 40% 가량 줄인 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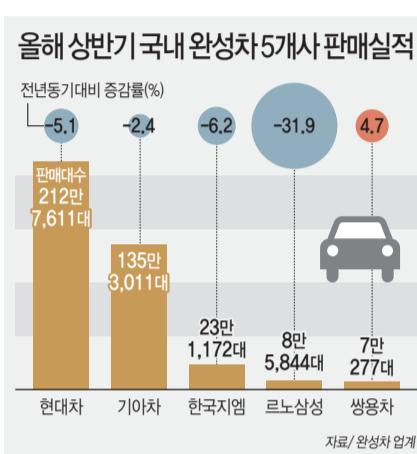
현대차 엔트리급 SUV '베뉴'



기아차 셀토스.

글로벌경제 둔화, 통상환경 악화 등 난재 산적해 해외선 판매 부진 전망

산업연구원 “내수 0.4% 증가 예측”
SUV·세단 등 신차로 내수 정조준
개소세 혜택 연장해 상승세 굳힐 듯



한국지엠과 쌍용차도 해외 수출 부진은 마찬가지다. 한국지엠이 3만 663대를 수출하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고, 쌍용차는 2156대로 25.5% 줄어 전체 판매실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쌍용차는 5개 완성차 중 유일하게 상반기 실적 개선에 성공했지만 최근 들어 판매 부진을 겪고 있다. 쌍용차는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급증으로 처음으로 노사 간 합의를 거쳐 이달 5일과 8일, 12일, 15일 생산중단을 결정했다. 내부적으로 집계한 재고량은 현재 5000대로, 적정 재고량(4500대)을 넘어서 것으로 알려졌다.

◆하반기 신차로 돌파구 모색

상반기 어려움을 겪은 완성차 업계는

다. 스마트스트림 1.6리터 가솔린 엔진을 탑재하며 1인 가구를 주요 고객으로 잡고 있다.

여기에 상반기 인기를 끈 신형 쏘나타의 터보 버전을 출시, 소비자 선택폭을 확대한다. 스마트스트림 1.6리터 가솔린 직분사 터보에 8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할 예정이다. 그랜저도 11월쯤 부분변경 모델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아차는 2세대 K7 출시 후 3년 만에 K7 프리미어는 부분변경(페이스리프트) 모델을 출시하고 하반기 내수 공략에 나섰다. 글로벌 전략 소형 SUV 셀토스도 8월 출시를 앞두고 있다. 정통 SUV 감성을 계승한 모하비는 부분변경을 통해 출시된다. 중형세단 시장에는 3세대 K5를 내놓을 계획이다.

제네시스 브랜드도 오는 11월 브랜드 첫 SUV GV80을 출시하며 SUV 시장에 가세한다. 제네시스는 GV80에 집중하기 위해 하반기 예정된 G80 신차 출시를 내년으로 미룬 상태다. 그만큼 제네시스 브랜드가 신형 SUV 차량에 거는 높은 기대감을 엿볼 수 있다.

한국지엠은 하반기 야심작으로 쉐보레 트래버스와 콜로라도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 오는 8월과 9월 순차적으로 출시할 예정이다. 트래버스는 대형 SUV로 3071mm의 휠베이스를 바탕으로 넓은 실내공간을 자랑한다. 파워트레인은 3.6리터 가솔린 엔진에 9단 자동변속기를 장착 최고 310마력, 최대 36.0kg·m의 주행성능을 발휘한다. 콜로라도는 쉐보레의 중형 픽업트럭이다. 프레임 구조의 차체, 넉넉한 실내 공간, 1170리터의 화물적재 능력을 지녔다.

르노삼성은 주력인 QM6로 승부한다. 이달 초 디자인과 사양을 개선한 모델을 출시했고 LPG 차량을 추가했다. 쌍용차는 최근 선보인 티볼리 부분변경과 상반기 출시한 신형 코란도 판매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반기에도 글로벌 경제 성장둔화 및 통상환경 악화 등 다양한 악재가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최근 현대·기아차의 판매 호조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관세 폭탄’이 완벽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중국은 자동차 수요억제 정책과 성장세 둔화,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로 당분간 부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인도와 터키 등 신흥국은 기대를 밀고 있다. 포스트 차이나로 이목을 끈 인도의 경우 최근 자동차 판매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 하반기에는 완성차업체들의 주요 신차 출시와 함께 개소세 인하 혜택도 연장돼 내수 판매 전망은 긍정적이다”라며 “하지만 해외 판매의 경우 글로벌 경제 성장둔화, 통상환경 악화 등의 악재를 이겨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한일 냉각 무색… 인재 모셔가는 日기업

무협, 일본서 IT 인재 잡페어
라쿠텐 등 日 기업 22곳 참가
기업 “회사 경쟁력 위해 영입”

한일 양국간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일본 IT기업들의 한국 청년 채용에 대한 관심은 뜨겁다.

한국무역협회 무역아카데미는 지난 1일부터 오는 4일까지 나흘간 일본 도쿄에서 ‘스마트클라우드(SC) IT마스터’ 잡페어를 진행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잡페어에는 IBM재팬, 파소나테크, 테크노프로 등 일본 IT기업 62개 사가 참여해 SC IT마스터 교육생 65명에 대한 최종 면접을 한다.

최근 일본은 2020년 도쿄올림픽과 아베노믹스 등으로 IT 개발 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오는 2030년에는 일본의 IT 전문인력 부족 규모가 약 59만명에 달할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 기업들은 이에 따라 무역협회의 IT마스터 출신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인다. 라쿠텐 등 22개 기업은 지난 5월 서울 코엑스에서 IT마스터 수료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별도의 기업 설명회와 면접을 진행한 뒤, 총 36명을 채용하기로 결정했다.

매년 채용에 참여하고 있는 일본 기



한국무역협회가 ‘스마트클라우드 IT마스터’ 잡페어를 열었다. /한국무역협회

업의 한 인사 담당자는 “우리 기업의 경우 정보통신기술(ICT)의 빠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IT 인재 채용에 적극적”이라며 “한국의 SC IT마스터 졸업생들은 일본 IT업계 환경에 최적화된 교육을 집중적으로 받았기 때문에 회사에 큰 경쟁력이 된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SC IT마스터’는 무역아카데미가 2001년 개설해 지금까지 2393명의 수료생을 배출한 무역아카데미의 일본 IT 기업 취업 과정이다.

한편 무역협회는 IT 외에 일반 직종의 일본 취업을 확대하기 위해 2일 도쿄에서 일본 최대 외국인 채용 알선기업인 네오커리어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배한님 기자 ericabae1683@

경제성장률 전망치 하향… “증시 영향 제한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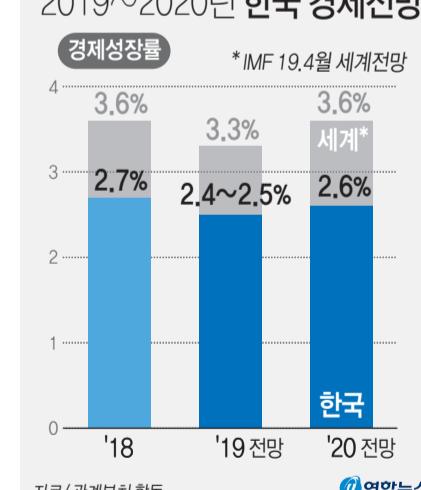
GDP 전망치 2.4~2.5%, 0.2%p ↓
미·중 무역갈등 등 불확실성 영향
전문가 “정부 정책 추이 지켜봐야”

정부가 3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춰 2.4~2.5%를 기록할 것이라는 새로운 전망치를 내놓았다. 증권가에서는 정부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이라 전망이 이미 반영돼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성장률 보다는 정부가 앞으로 내놓을 경제 정책에 관심이쏠린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성장률 전망치 하향은 증권가의 예상치인 2% 초반대를 상회한 것으로, 실제로 이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해 7월 올해 경제성장률이 2.8%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5개월 만에 2.6~2.7%로 낮춘데 이어 이번에 다시 하향 조정한 것이다. 이는 당초 예상보다 미·중 무역 갈등이 길어지고 수출 부진과 반도체 가격 하락이 계속돼 이를 반영한 것이다.

KB증권은 증권가에서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2.4% 정도로 예상했지만 정부의 전망치는 이를 상회한 것으로, 이번 전망치에는 일본과 통상

2019~2020년 한국 경제전망



마찰 문제가 반영이 안됐다는 점 등을 볼 때 향후 업사이드보다는 다운사이즈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장재철 KB증권 수석 이코노미스트(상무)는 “우리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3%로 예상했는데 이는 부진한 투자가 경제 성장을 제약하고 있으며, 글로벌 경제를 볼 때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불확실한 요인들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며 “수출 회복이 지연되는 것도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장 상무는 “여러 요인들이 수출 회복을 지연시켜 당초 연간 수출이 4~5% 정

도 감소하고 4분기에는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수출 회복이 지연돼 4분기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구용욱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장은 “이번 정부의 발표는 예상했던 사항으로 이미 민간연구소도 이 같은 전망을 발표해 증시에 영향을 주기는 힘들다”며 “다만 증권가에서는 올해 경제성장률이 2% 초반대로 예상해 정부의 예상치는 이보다 더 높다”고 분석했다.

구 센터장은 “이번에 정부가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한 것은 그만큼 정부도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인식한 것으로 정부가 조만간 추경(추가경정예산)이나 재정 지출을 통해 하반기 경제정책 운용 방향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돼 향후 정부의 정책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렬 교보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올해 상반기 평가하며 경제성장률이 하향 조정될 것이라는 점이 이미 증시에 반영됐다”며 “지난 6월 이후에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통화정책 스판스 변화와 올해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었고 이 문제가 쉽게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평가했다.

/체윤정 기자 echo@